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사람이 살아가는 참다운 모습

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은 죄를 감추고 빠져나가려는 우리나라의 법정과 선진국 미국의 법정은 다르다. 어떤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법에 따라 공정하게 벌을 받는 것이 미국의 사회며 미국의 국민정신이다.

예전에 미국 마이애미 통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사람이 살아가는 참다운 모습의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중년 미국 여성분이 있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력한 저명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가 하필 아들 형제의 죽창이 저명인사가 타고 있던 말의 눈을 찔러, 놀란 말이 팔짝 뛰는 바람에 말과 저명인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됐다. 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문제인데 그 말의 가격도 자그마치 천만 불이 넘는 세계에 몇 마리밖에 없는 엄청 비싼 명마(名馬)였다.

두 아들이 재판받게 됐다. 판사가 형제 둘에게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느냐고 물었다.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쓴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청한 것이다.

판사가 마음씨 아름답고 형제 우애(友愛)가 남다른 그 형제의 어머니를 재판정에 불러세우고,

“부인,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에 말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하도록 하시오.”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기도가 끝난 부인이 하는 말,

“작은아들을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판사가 “왜 작은 아들입니까?”

“판사님, 큰아들은 전처(前妻)의 아들이고 작은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느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지고 재판정이 쥐죽은 듯 고요 속에 묻혀 있을 때, 방청객들은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받은 판사가 힘을 주어 근엄한 음성으로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하면서 오늘과 같이 감동하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도 또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 가족이라고 판단한 판사는 힘주어 판결문을 낭독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지만,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국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정신, 또 숭고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전처의 아들과 친자식을 함께 키우며, 두 아들이 서로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게 끔한 엄마의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인간성을 바로 세우도록 교육한, 그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이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요즘 한국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 종교인, 사회 저명인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된 남의 탓으로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 글을 대입(對入)해 소개했다.

인간의 바른 인성교육을 하는 곳은 가정과 학교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효를 근본정신으로 해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계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차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애국심을 깨우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패정치의 법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되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꿈을 둔 후보들이 벌써 선을 보이고 있는데 전과자는 정치판에서 배제해야 하며, 바른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해야 바람직한 복지 선진국이 된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말며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으며 신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법도에 따르며 지키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안 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은 다민족(多民族)이 모여 국민을 이루어 살고 있으나 미국인은 애국심이 투철하며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

독자기고

## 이번 추석은 ‘주택용소방시설’과 함께 합시다

정온유  
여수소방서 화력119구조대 소방장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이번 추석 연휴는 6일 간으로 모처럼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됐다. 예로부터 추석, 순 우리말로 한가위는 음력 8월의 한 가운데를 뜻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다. 빛나는 황금 들과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실이 연상되는 이 수확의 계절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친지들과 만나 ‘정’을 나누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계절의 풍요로움을 나눈다.

한 여행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해외보다는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와 마을에서도 오랜만에 고향과 농촌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콘텐츠를 준비해 손님 맞이에 힘쓰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만 알아보더라도 고되고 무료하다고 여겨지는 귀향 일정에서 벗어나 알차고 재밌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으

면 하는 가치가 있다. 바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다. 연이어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 소식들은 우리들로 해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을 쉽게 떠올리게 만들었다.

‘함께’를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명절이다. 한가위하면 연상되는 강강술래, 송편 빚기 등 명절에 즐기는 이 놀이들은 모두 함께하는 성질의 것이며 함께해야 즐거운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놀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고향과 단절 보다는 만남과 어울림이 더 즐겁고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에서 오는 재미와 의미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명절에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 없는 이 시간은 의외로 우리 서로 간의 연결을 확인시켜 주고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을 남겨 사회적 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을 심어주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연휴에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내려두고 시원한 바람 실랑실랑 부는 편안한 농촌에서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올해 한가위가 독자 모두에게 ‘함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